**Q1 자유논제**

**오랑 시는 페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폐쇄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을 이유로 도시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장 전염병의 치료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나라가 아니라 도시를 폐쇄한다고 생각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 엄청 끔찍할 것 같다. 국가는 계속해서 도시를 폐쇄하지 않고 감염자들을 격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감염병 사태를 되도록 빨리 해결해야할 것이다.

**Q2 자유논제**

**랑베르는 타루가 리외의 부인이 요양소에 있다는 것을 말하자 전에는 거절했던 보건위생대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랑베르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랑베르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운 감정이 생겼을 것 같다. 자신의 아내는 외부에 있어도 건강하지만, 리유의 부인은 요양소에서 병원생황을 하고 있는데도 리외는 내색 한번 하지 않아서. 의사 리외도 랑베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래서 푸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Q1 선택논제**

**페스트는 공동체가 똑같이, 공평하게 겪는 고통이다. 페스트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판사에게도 범죄자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 공동체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면서, 리외는 “하느님조차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연대. 유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은 모두 연대하고 유대하게 될까요? 소설은 반대의 사례도 나옵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변화된 우리 사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띈다고 생각하나요? 또 코로나 이후 이전과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무엇을 얻었을까요?**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은 모두 연대하고 유대하기 힘들다. 전염병이 퍼진 상황에서 공동체의 유대와 연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보았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1년 넘게 겪으면서 다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게 연대와 가깝다고 생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서 쉽게 연대가 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 이후의 우리 생활은 개인를 중시하는 사회로 바뀔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모일 수 없게 되고, 집콕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보니 개인의 영역이 더 넓어졌다. 대면으로 하는 단체 생활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는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집단에서의 유대감을 더 중요시했던 전보다 개개인의 취향을 더 존중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본다.

**Q2 랑베르는 페스트가 퍼진 나라에 억류된 여행자였습니다. 도시가 폐쇄되어버린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리유의 입장이라면, 랑베르에게 증명서를 써줄 것인가요?**

랑베르에게 증명서를 써주지 않을 것이다. 그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랑베르가 페스트 증상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언제든 페스트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랑베르 혼자만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랑베르에게만 특별하게 증명서를 써 줄 수 없다.